

기조발제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지만 정상 간의 방문도, 양국 정부 공동 행사도 없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계획되었던 학술·문화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한중 수교 사반세기의 역사를 크게 기념해야 할 이 시점에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힘든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기적의 양자관계라고 불릴 만큼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투자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6년 2114억 달러로 약 33배가 증가했고, 상호 인적교류는 연간 천만 명을 돌파해 수교 당시보다 80배나 늘었습니다. 양국 간 항공 편수도 주 1,10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중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중국 외교에 있어 최상위 관계 중 하나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정당 간의 4개

전략 대화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인문사회 교류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한중은 그간 북핵문제, 북한 급변사태문제, 한미동맹, 일본과의 관계, 해상경계 획정 문제 등에 대해 중요한 이견이 존재했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취약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드(THAAD)로 악화된 한중 관계는 양국이 소통과 상호 이해, 신뢰 부문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여전히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결코 한중 관계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한중 양국이 서로 지혜를 모아 사드 문제를 잘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중간에는 북핵 문제, 주변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 한반도의 미래, 한중 경제 협력,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등 협력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장,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이 모두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한중은 보다 많은 영역에서 상호 이익을 나눌 수 있고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금년 내에 양국 정상 회동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물론 한중간에는 사드문제 이외에 다른 장애요인도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우려스런 구조적인 변화는 그간 한중 우호관계의 근간을 제공했던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술격차는 사라졌고, 한중 간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홍색공급망의 확대는 그간 중간재를 제공해 왔던 한국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점으로 한중 무역 규모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호적 한중관계의 기초인 경제협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

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중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협력 토대를 만들기 위해 선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한중 간 시급한 것은 우선 정치적 신뢰, 지도자간의 신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정책이나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추적인 중견국가로서 새로운 외교적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며, 미중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지역 강대국으로서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역내 최대의 안보 불안정 요인인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한중 정치적 신뢰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역내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 한중간에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한중 경제 협력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간 경제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

로' 상호 경제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분업 체계와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봅시다.

아울러 양 지역 간에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질병, 환경오염, 테러, 관광, 에너지, 의료, 식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우선, 좁은 의미의 환황해 지역에서 시작하여, 중국에는 환발해, 환동중국해, 환동해, 환북극해로 확산되는 세계적인 협력의 띠를 구성(構成)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북한도 결국은 핵무장을 포기하고, 공존과 공영의 삶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환황해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접목하자고 제안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동북아 플러스 및 신한반도 경제구상은 상호 결합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한반도 구상에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교류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장차 미래 국가전략구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화민족 부흥의 꿈과 우리 한민족 번영의 꿈이 서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역내 싱크탱크 그리고 역내 지역 지도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 공존, 발전의 기치 하에 “이익과 희망의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Current Statu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on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hn Hee–ju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To all the visitors from Korea and abroad participating in the Pan–Yellow Sea Forum

August 24th of 2017 mark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t was a very meaningful day. However, there was no visit from leaders in the two countries nor was there any public event held by the governments in the two countries to mark the occasion.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that were planned in commemo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cancelled or reduced in scop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suffered the most acute crisi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This is unfortunate as this should have been a time to celebrate 25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92,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remarkably developed. As of the end of 2016, Korea is the third biggest trading partner and investor in China and China has

become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The scale of trade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33 times from 6.3 billion dollars in 1992 to 211.4 billion dollars in 2016. The number of visi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eached ten million people a year - which is 80 times greater than when diplomatic relation were established. The number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pproximately 1,100 times a week.

Korea and China set the goal of achieving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 as one of their highest diplomatic priorities during the times of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fterwards, when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visited China in 2013, both countries agreed to fully internalize this goal. In addition, both countries have newly established four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ational policy research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direct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member in China in charge of diplomatic matters. Korea-China FTA was concluded in 2015, and social exchanges have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South Korea and China have often disagreed on issu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matters relat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owever, cooperation has been improv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ding commonality while acknowledging difference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grown significantl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However, problems clearly continue to exis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deteriorated due to the THHAD issue and this indicates that both countries will need to continue making efforts in terms of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The government that is currently led by President Moon Jae-in hopes to significantly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urrent government wants to form a practical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way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of THHAD cannot be the focal poi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 hope that Korea and China will work together wisely on the issue of THHAD. There are many matters about which Korea and China can cooperate including the issue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uncertainty surrounding security issue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If they do not cooperate regarding the issue of a nuclear North Korea, both South Korea and China will be in a difficult position.

Korea and China are both in a position to enjoy mutual benefits in many areas and improve on their strategic relationship. We expect both countries to conduct a general meeting within this year on the basis of pursuing mutual benefits and improving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course, there are obstacles other than THHA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tructural change that concerns us the most recently is that the regional division of labor in Northeast Asia that has previously provided the basis for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ast started to collapse. Due to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technological differences

have narrowed, and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increased. The growth of China's Red Supply Chain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role Korea had previously played in providing intermediary goods. As of 2014, the scal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decreased for three years in a 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Redu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a cause for concern as it may impact negatively on relations. The strategy for relying on America for national security and on China for the economy is expected to no longer apply.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currently in deadlock and prepare for the basis of medium to long term cooperatio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efforts must be exerted together. For this, I am making two suggestions.

First of all, I am suggesting re-establishing trust among leaders as well as political trust as the most urgent matte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is,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deliver consistent messages to China. I believe that policies biased towards either America or China, or any other policies hostile to China will not succeed. Korea must be able to solidify its relationship with America and also proceed to promote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at the same time. As a country that plays a pivotal role, we need to pioneer new diplomatically cooperative relat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ocal stability and peaceful relationships, and form cooperative and stable relationships that both America and China can rely on.

As a powerful nation near Korea, China should provide public good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China must exert the greatest effor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as it is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the uncertai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This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political trust between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both countries must be able to draw up a new blueprint with other countries to promote mutual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area.

Secondly, I am suggesting that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proceeded with through ‘cooperation in Pan–Yellow Sea areas’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new driving force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becoming structurally difficult. As there is an accelerating trend for Korea and China to become economically separated, there is a need for Korea and China to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establish mutual economic cooperation and a work division system. I suggest making an effort to form a local work division system that goes beyond the national unit and includes interested communities by improving the cooperation among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cooperation including economic collaboration in both countries is required in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errorism, tourism, energy, medicine, and food. Speaking of geographic spaces, I suggest forming lines of global cooperation starting from the narrow scope of the Pan–Yellow Sea that expands to Bohai Sea rim, East China Sea rim, The East Sea rim, and The Pan Arctic Sea rim in China. In the course of making such an effort, I suggest that North Korea is

encouraged and enticed to give up nuclear armament and participate in matters related to co-existence and public management.

Taking one step forward, I suggest incorporating these initiatives in a step by step manner on the basis of Pan Yellow Sea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e plan for cooperating with China in a step by step manner and also the Northeast Plus of Korea and the economic blueprint in new Korean Peninsula can be mixed and matched together. The plan of the government led by the current president, Moon Jae-in, for new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logistic traffic belt in the West Coast.” This goes beyond the scope of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it may be feasible to achieve bigger synergic effects when incorporating it with the step-by-step plan regarding China and develop it as a national strategic plan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dream of prosperity of Chinese nations suggest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19th party convention and the dream of prosperity of the Korean nation positively influence each other and these two visions are promoted to benefit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of East Asia. I suggest activating exchanges among Think Tanks and local leaders in these areas and working together. Based on these exchanges, I fervently hope a “community of interest and hope” is established based on peace, co-existence, and development in our shared lands.

Thank you.